

“감사함이 흘러 넘치는 가정” (골로새서 3장 15-17절)

설 명절은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는 참으로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기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긴장과 피곤함이 공존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가족 서로 간의 오고가는 행동이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말 한마디로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무엇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15절 하반절)

감사함이 흘러넘치는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감사의 고백과 사랑으로 채워져 가게 됩니다. 본문 말씀은 이를 위해 두 가지를 실천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첫째,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다르실 때 시작됩니다.

본문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가정의 문제는 대부분 상황 자체 보다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서로를 비교하는 마음, 서운함을 품는 마음, 서로를 판단하는 마음이 가정의 평안을 흔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은혜를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15절 마지막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먼저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음에, 이 자리에 있음에,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로 나아갈 때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가정을 불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서로 감사와 격려의 한마디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감사는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로 열매 맺습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그 말씀은 머무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순종의 삶으로 이끌며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따라서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서로를 향해 감사와 격려의 말을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 가정을 가득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명절 연휴 기간, 서로를 향해, 또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입술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6

설날 가정예배

하나님의 사랑안에서
평안하고 풍성한 설 되세요



2026 설명절 가정예배

목상기도

다같이

신양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차속

찬송가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 다같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후렴)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후렴)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산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기도 ————— 가족중에서

성경봉독 ----- 골로새서 3장 15절 ~ 17절 ----- 사회자

- 15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설교 ----- “감사함이 흘러 넘치는 가정” ----- 설교자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